



앤디 위홀 작 'Mao'



앤디 위홀 작 'Queen Margrethe II of Denmark'

# '역사적 사건 미래적 기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014'(art : gwangju : 14)가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미협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아트광주2014는 '역사적 사건과 미래적 기억'을 주제로 국내 68개, 국외 13개 등 국내외 81개 갤러리가 참여해 40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에서는 역대 최대 갤러리인 12곳이 참여한다.

전체 참여 갤러리는 1~3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박영덕화랑, 이화익갤러리,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동원화랑 등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화랑은 없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개점휴업' 상태인 광주 지역 갤러리의 참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아트광주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 무리하게 지원하면서 갤러리를 초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미술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갤러리들이 신청을 해왔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갤러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트광주를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광주미술의 산업체계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광주화랑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신성한 화랑들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앤디위홀, 에바 알머슨, 백남준, 만 레이, 크리스토퍼 자바체프, 빌 브란트, 이우환, 호소 에이코, 김창열, 왕지지에, 호안 미로 등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현대미술 스타들의 작품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어서



아트광주2014  
30일~9월2일 DJ센터



만 레이 작 'Noire et blanche'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전은 주제에 맞춰 현대미술과 현대성의 상징적 양상을 한눈에 드러내는 주제전과 앤디위홀 특별전, 그리고 현대 광주·전남의 문화정체성의 이미지를 미디어아트로 가시화하는 미디어아트특별전으로 구성됐다.

현대사진 특별전은 '잠상'(潛像)을 주제로 현대의 문화적 양상을 사진화한 현대사진으로 구성했다. 다다이스트면서 초현실주의자인 만 레이, 현대사진

의 거장 호소 에이코, 그리고 으젠 앓제와 빌 브란트, 이리나 이오네스코 등 20세기를 수놓은 사진작가들과 백승우, 펠릭스 R. 시드, 장태원, 유연중, 리차드 초이 등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위홀, 위홀'을 주제로 열리는 앤디 위홀 특별전은 포스트위 이후 팝컬처와 매스미디어 중심의 대중문화 양상을 현대미술의 주제와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팍 아트의 도상 앤디 위홀의 대표작들로 구성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특별전은 20세기 중반 광주·전남 지역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긴 이경모의 작품을 미디어아티스트 나명규가 차용해 구성한 미디어아트 특별전이다.

이 밖에도 후지필름과 조선대 미술대학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LUSOP(Let Us Show Our Possibility)의 설치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31일 오후 1시 '아트를 위한 맥락 만들기'를 주제로 글로컬시대의 '아트'를 논의하는 렉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아트광주2014 정훈 예술감독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주'라는 이름을 보고 참여신청을 해온 타지역 갤러리들이 많았다"며 "광주의 문화적 토양들의 연결고리만 형성되면 광주의 아트페어는 물론 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광주2014는 올해 초 주관기관 선정을 놓고 한국미협과 광주미협 사이에 불협화음을 내는 등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또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입장료는 1만원으로, 아트광주2014 티켓을 가지고 있을 경우 광주비엔날레를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국내의 81개 갤러리·400여 작가 참여 ... 앤디 위홀·백남준·이우환 등 작품 전시

### 메이커스 스튜디오 청년장사꾼 김연석 대표 강의

메이커스 스튜디오의 8월 강사로 청년장사꾼 김연석 공동대표(사진)가 광주대인 예술시장에 온다. 강의는 21일 오후 2시 대인예술시장 내 상인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강의는 '열정을 만나면 정열이 솟는다, 청년장사꾼'을 주제로 진행된다. 메이커스라는 주제에 한정 짓지 않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청년으로서 하게 되는 고민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 등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강의할 예정이다.

#### 오늘 오후 2시 대인예술시장

또 시장문화기획자였던 김 대표가 청년장사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장사'와 '문화'를 접목한 사례, 2년여 간의 청년장사꾼 운영 사례들을 들려준다.

청년장사꾼은 2012년 8월 이태원 우산단로에 처음 문을 연 '사원 앞 카페 벚'을 시작으로 감자집, 골뱅이집, 꼬치집 등 현재 서울에 모두 7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메이커스 스튜디오는 무엇이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손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업사이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도 하는 청년 메이커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청노루 글쓰기 교실'

#### 광주성공회센터 9월 1일부터 2학기 문화강좌

광주성공회센터가 9월 1일부터 2학기 문화 강좌를 운영한다. 광주성공회센터는 대한성공회 광주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로 2010년 가을 '청노루 글쓰기 교실'을 개설하며 시작했다.

12월 17일까지 월산동 광주성공회센터(화성회관 3층)에서 진행될 이번 2학기 강좌는 글쓰기뿐 아니라 '한국사', '주역', '기타 강습' 등 과목을 신설,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쓰기 교실'(월요일 오후 7시~9시)은 희곡작가 김영학씨가 강사로 나서 문장, 단락 쓰기 및 수필 쓰기를 강의하며 '한국근현대사'(수요일 오후 7시~9시)는 김순필 전문강사가 한국 근현대사 쟁점을 시민들과 나눈다.

'역(易)과 명리'(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7시)는 최병학 주역 연구자가 주역의 원리와 세계를 이야기하며, 기타교실(수요일 오후 9시~10시)에서는 최경 기타리스트가 맞춤형 기타 레슨을 진행한다.

강좌 신청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여성만 접수 가능) 공지사항에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기면 되며 과목 당 40명으로 제한한다. 문의 010-5642-9263.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YMCA, 문화센터 가을학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광주YMCA와 함께 9월2일부터 11월22일까지 미술관 문화센터 가을학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우, 성인 취미 강좌 등이 기획됐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갤러리 전시연계 프로그램(5개 과정), 작가랑 함께 하는 재미있는 미술관 체험(2개), 이색미술관 체험(8개), 애니메이션(3개), 부모강좌(4개),

엄마랑 나랑(7개), 유아·어린이강좌(8개), 청소년 토요일 강좌(4개), 성인예술 취미 과정(10개),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6개), 희망미술프로젝트(2개) 등 모두 6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체 수강인원은 6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art-muse.gwang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강좌별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전남대 기초교육원 '글쓰기·교수법' 워크숍

#### 28일 오후 4시 진리관 701호 강의실

"글의 특성에 맞게 고쳐쓰기만 잘 해도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다" 전남대 기초교육원(원장 이학영)이 글쓰기 및 글쓰기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28일(오후 4시~5시30분) 진리관 701호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효과적인 글쓰기 피드백 방안과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실제 피드백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사례문을 토대로 구체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례 발표는 이혜란 박사(영어영문과), 심영의 박사(국어국문과), 심옥숙 박사(기초교육원) 등이 나서 지면 피드백, 대면 피드백, 수업 시간 활용 피드백을 소개한다. 피드백 사례 소개 이후에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글쓰기 및 글쓰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글쓰기를 강의하거나 글쓰기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530-091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